둘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는데 왜 각각 보십니까!

☞ 21면에서 계속

는 무엇으로 붙여 놨느냐. 지장으로 붙여 놨고요. 그러니 자기가 이름을 자기 마음으로 붙여 놓고 자기가 움죽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움죽거리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또 한편에는 문수를 놔 놓고 한편에는 보현을 놨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겠습니까? 아까 수박 얘기했죠? 싹이나 수박이나 씨나 이것이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요. 부처는 생각 내기 이전이 부처라고 보고요, 생각을 냈다 하면은 그게 바로 문수입니다, 법신! 그럼 생각을 낸 것이 뭐냐? 바깥으로 나온 게 보현이에요. 그래서 들이고 내는 것도 보현이요, 모든 걸 보호해 나가면서 화하는 것도 보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 내기 이전이요,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요,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고 보신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졌으면, 어디 다리가 다쳤으면 "아이쿠!" 하고 여러분 손이 가서 털고 얼른 일어나지, 딴 사람이 털어 주고, 딴 사람의 손이 와서 털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바로 보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신이며, 그리고 자꾸 찰나찰나 화하니까 화신이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름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야! 이걸 털어 주고 남이 엎드러졌어도 일으켜서 털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현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데도 보호해 나가면 보현이 되지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리로 저리로 화해서 바꿔질 때에는 화신이죠. 그러니 이름이 수차적으로 바뀌져요. 여러분이 부모를 만날 때는 자식이 되고 자식을 만날 때는 부모가 되고 아내를 만날 때는 남편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내 아내를 만날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깐 경을 보면은 밑바닥의 백지를 볼 수 있어야만이 경을 올바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경 구절에 있는 것도 그 뜻을 헤아려서 실천궁행을 해야만이 부처님의 참불제자라고 할 수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죠. 자식한테도 부드럽게 해 주라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라고, 평등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니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것은 어떠한 것으로 비었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비었다고 합니까? 내가 항상 말씀해 드렸죠. 말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배우시라는 얘기죠. 뜻을 아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해도 그냥 집어 먹어야 돼요. 말로 옮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집어 먹어야 되죠. 목마르면 물 먹듯이 말이에요.

"본래 공했기 때문에 비었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래요. 그래서 "본래 공한 것을 어떻게 공이라고 체험을 합니까?" 또 이렇게 물었더래요, 글쎄. 그래 꼬리가 꼬리에 붙어서 돌아간 거죠. 공했다고, "그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한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공은 어디서 구합니까?" 부처님 해탈 속에서 구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공한 것을 어디서 구하느냐니까, "육십이 소견, 외도 소견 속에서 구합니다." "그래, 육십이견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해탈 속에서 구한다." 그랬어요. 돌아가서 참 묘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육십이견 속에 소견, 외도 소견 모두를 종합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전체를 한, 그 마음 속에서 구했다는 뜻이죠. 거기서밖엔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뜻을 우리가 삼키면서, 또 삼키고 행하면서 우리는 지혜를 넓혀 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대나무 귀신 방귀를 먹고 넓혀 간다." 이런 말을 했죠. "자기 싹을 구하려면 대나무 방귀씨를 구해야 하고 그 방귀씨를 싹을 틔워서 기르려면 대나무 귀신 방귀를 더 먹이지도 말고 덜 먹이지도 말고 아구창 나지 않게 먹여서 키워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낚싯밥인지도 모르죠. 이 도리를 아는 분들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십이견은 어디서 구합니까." 하니깐 부처님 해탈 속에서 구하고, "부처님 해탈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중생들 마음속에서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또 풀 한 포기, 벌레 하나가 아니었더라면 내 어찌 그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벗이요, 모두 도반이요, 모두 스승이요." 하고 말을 했죠. 그쯤 해 놓고요, 요거 한마디를 하고 딴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가난과 병고와 우환 등 여러 가지죠. 자식들을 이끌어 가는 데도 그렇고 또 부모가 자식들을 이끌어 가려면 움죽거리는 그 생활도 그렇고 자기 몸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괴로움이 한두 건이 아니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 도리를 알고 공부한다면, 아주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도리 또 생산적인 도리, 개발적인 도리를 공부하신다면 이것은 불가사의한 법으로서 그대로 편안하게, 언어조차도 붙지 않는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해 갈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바깥에서 유전성으로 오든, 안에서 인과로 인해서 벌어지든, 영계가 들고 뭐, 안팎으로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생활을 하다가도, 뭐, 회사가 망했다든가 또 공부를 하다가도 그냥 지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가정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다 물리치고 녹이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는 해결을 못 한다' 하고선 거기다 딱! 맡겨 놓고 지켜보는 그것이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관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켜보고 관한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습이 녹아지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진짜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입력입니다. 입력!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 오는 대로 입력을 해 놓으면 그게 돌아간다.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자동기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이제는 둘이 아니게 내 주인공에, 아들이 아파도 내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맡겨 놓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해 나가서 완벽하게 이게 선다면, 아,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까 뭐랬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랬죠?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죠. 둘이 아닌 까닭에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병을 고쳐 주려면, 예를 들자면 특히 정신질환은 더합니다. '네 주인공만이 너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네 주인공만이 너를 이끌어 갈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붙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묘한 생각이 있어요. '에이구! 이거는 무슨 어머니 조상이 붙었고 무슨 누구 영계가 죽었는데 여기 붙어서 이럭하고….' 아, 요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떠나야 할 텐데, 놔야 할 텐데 고런 생각들을 하니 이게 떨어집니까, 네? 뭐가 붙었습니까? 물 한 그릇에다 물방울 하나 넣은 거와 같은데, 항상 그렇게 일러 드려도 그것을 놓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 딴 영계가 들어왔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부었습니다. (컵의 물을 뚜껑에 조금 부었다가 다시 컵에 부으신 후) 그럼 물 한 그릇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이 들어와서 딴 영계가 내 집 주인 노릇을 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모두 한 그릇에 있어요. 같이 먹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 치운다면 상당히 좋을 것을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런데 거기 한데 들어갔으니까 천 명이 들어가도 두 명이 들어가도 한 명이 들어가도 아이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고 우리 딸이 이렇고 무슨, 내가 이렇고 무슨, 누구가 이렇고…. 이런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왜냐? 여기 물컵에 들어갔으면 벌써 한 그릇이야. 한 물이야. 영에다가 영을 넣으니까 몇이 됩니까? 예? 그냥 영이죠? 허허. 스무 개를 넣으면 또 더 두드러집니까? 그냥 영이죠? 그런데 거기 뭐가 붙었다고 합니까? 참 이상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 십 년이고 몇 년이고 그냥 고통을 받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각각 보십니까! 둘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는데 왜 각각 보시느냐 이겁니다. 요거는 내가 꼭 말을 하고 넘어가겠다고 다짐을 한 거거든요, 하도 애를 쓰니까. 그래서 영과 영이 열 개가 한데 합쳤어도 둘이 아닌 까닭에, 야, 아무가 들어왔더라도 주인은 주인 아니겠는가. 그러니 주인공이야, 그냥. 당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로 주인공 아닌가. 그러니 '이 몸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당신밖에 없어.' 뜻으로다가 속의 주인공을 이렇게 탁 잡아 주는 겁니다.

시식을, 제사를, 천도를 수백 번 드리는 것보다 그 한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땀 흘리고 돈 벌어다가 허탈히 쓰는 법을 버리고 돈 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돈 버는 것만 배우지 마시고 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르게 써야지 올바르지 않게 쓰는 것은 귀신 놀음이나 한가지고 도깨비 장난이나 한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못 사는 것도 여러분의 차원 때문입니다, 모르는 차원.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차원 때문에. 난,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뭣이 없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못 들어보셨죠? 이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 명이 들어갔어도 당신이 바로 주인공 아니겠는가!' 하고 주인공만이 속의 뜻을, 말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뜻으로서 '주인공만이, 당신만이 이 애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는 신념과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저 만날 적마다 그렇게 해 준다면, 또 만나지 않을 때도 그렇고 만나서도 그렇고, 먼 데 있으나 가깝게 있으나 똑같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를 달린대도, 탐험을 한대도 둘이 아닌 까닭에 마음은 그저 어디도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산이 높아서 못 넘는 게 아니고 물이 깊어서 못 건너가는 게 아니고, 은산철벽이 두꺼워서 못 뚫는 게 아니라고요. "사방은 툭 터졌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드렸으니 인제는 모든 마음을 같이 이렇게 들면서 중용을 하세요. 활용이 아니고 중용입니다. 안팎이 다 들리는 그런 활용 말입니다. 그것이 중용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해 드릴 것은, 여러분이 각자 말입니다, 내가 항상 "오신통, 오신통" 했는데 오신통이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니깐요. 무슨, 없는 것을 발견을 해야 그게 대단한 거지, 본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떡하면 알아듣기 쉬울까 해서 현실의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현대 용어로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머리 위에 신통이 다섯 개라면, 줄창 말을 하죠? 숙명통이니 타심통이니 천이통이니 신족통이니 또는 천안통이니, 이 다섯 가지 문제가 여러분한테 재료로 주어져 있다고요. 만약에 그걸 벗어나서 대뇌로 돌아간다면 모두 통신이 된다 하는 걸 레이더망으로다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신족통이라는 것은 아까 팩스로 한번 비교해 봤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니까요. 또 탐지기 보셨죠? 그것은 타심통에다가 비유할 수 있다고 항상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되풀이하느냐 하면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요.

(다음 호에 계속)

> 용도에 따라 오는 대로 근본 자리에 맡겨 놓고
> '거기서밖에는 해결 못 한다.' 하고선 거기다 딱!
> 맡겨 놓고 지켜보는 그것이 관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90년 3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